

장흥서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1주년 기념 축제 열린다

18일부터 2달간 문학 릴레이 행사
보림사 비자림음악제·북캠프 연계
탐진강변 등서 '전남 콘텐츠 페어'도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수상 1주년을 기념해 장흥군이 오는 12월까지 다채로운 문학 릴레이 행사를 연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0일은 스페인 한림원이 한강 작가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공식 발표한 날이다. 이는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한국 문학의 가치와 진면목이 세계 문학사 중심으로 올라선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흥군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당시 전국민이 느꼈던 감동과 기쁨을 되새기고, '노벨문학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문학 릴레이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노벨

문학도시 보림사 비자림 음악제'로 시작된다. 전년고찰 보림사와 비자림 숲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성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24-25일 이틀간 옛 장흥교도소 '빠빠용zip'에서는 전남도 내 중학생 60명과 문학인이 참여해 문학 치유와 창작을 체험하는 '문학 북캠프'가 열린다.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은 탐진강변과 빠빠용zip 일원에서 문학과 여행, 체험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학 포레스트'와 '전남

콘텐츠 페어' 행사가 동시에 개최된다. 행사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흥 문학의 권위와 특별함을 상징하는 '장흥문학상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정남진도서관에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한강 작가 책읽기 캠페인'을 운영해,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을 읽고 감상을 나누며 문학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문학 릴레이의 마지막은 12월10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행사로서 마무리

리된다. 장흥군은 대한민국 문학사에 새 역사를 쓴 그날의 감동을 되새기며 장흥군이 지향하는 '노벨문학도시' 비전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었다"며 "노벨문학도시 장흥군이 한국문학이 세계와 소통하는 중심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문학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 기자



곡성군 동화정원에 핀 황화 코스모스

(곡성군 제공)

곡성 '시월애 어느 멋진 날' 음악회

18-19일 이틀간 동화정원서 개최

곡성군이 가을 정취가 절정에 이르는 오는 18-19일 이틀간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한 동화정원에서 가을 음악회 '시월애 어느 멋진 날'을 개최한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초 유채꽃이 만발했던 동화정원에서 봄의 향기를 가득 담은 음악회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데 이어 이번에는 가을의 주인공 황화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핀 공간에서 다시 한번 계절의 낭만을 음악과 함께 전할 예정이다. 음악회는 18-19일 양일간 오후 1시30분부터 5

시까지 진행되며 자연과 음악, 체험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족, 연인, 친구 등 누구와 함께해도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총 3팀이 무대에 오른다. 섬세한 선율로 가을의 분위기를 더할 전자현악듀오를 시작으로 '미스트롯3'와 '골 때리는 그녀들' 등에 출연하며 국내 팬들에게 친숙한 스페인 출신 아티스트 라 베니또가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깊고 풍부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파페라 그룹 레디스가 웅장한 하모니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과 함께 다양한 가을 감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화분 만들기, 배스밤·갓 키팅·전통 노래기 등 케데넝 굿즈 만들기, 격정이 인형

과 비즈로 꾸미는 플라워 소품 만들기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캐리커처 체험과 로즈커피, 꽃차 시음 코너도 운영된다.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되며 사전 신청 (<https://naver.me/5u9GHqLZ>)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 내에는 SNS 인증 이벤트 부스와 보물찾기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기차마을 동화정원 간 셔틀버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시로 운행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한 동화정원에서 음악과 체험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를 통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여수시 '정신건강 홍보주간' 운영

14·21일 커피차 운영 텀블러 지참
자가검진 참여 시 모바일 쿠폰 지급

여수시는 13일 "오는 24일까지 정신건강의 날(10월10일)을 기념해 '2025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주간은 '마주해요: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나누고 조기 상담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행사로는 제4회 마음 나누기 커피차 운영 '따뜻한잔, 마음 두스폰'이 있다. 행사는 ▲14일 시청 국동 임시별관 ▲21일 여수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오전 8시부터 진행되며 텀블러를 지참한 시민에게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마음 돌봄 자가검진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오는 24일까지 여수시정신건강복

지센터 누리집 (<https://www.061mind.or.kr/yeosu>)에서 우울증 자가검진에 참여하면 자동 응모되며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이 밖에도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 포스터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며 함께 지켜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홍보주간을 통해 시민들이 마음 건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성군 '구직자-기업 가교 역할' 郡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호응

장성군이 최근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취업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업 문화와 실제 근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전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기획·추진했다. 총 20명의 구직자들이 '보혜양조 장성공장'과 '쿠광 로지스틱스서비스 장성 서브허브'를 방문해 기업 소개 및 탐방, 인사 담당자 특강, 질의응답 등의 순서에 참여했다.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사진)



군은 앞선 7월에도 목포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들과 함께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에이치엘비랩', '참뎀건강과학'을 탐방한 바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구직자와 기업을 잇는 '희망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오는 18-20일까지 열리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에서 '일자리 홍보부스'를 운영해 ▲인생네트 ▲타로 취업 컨설팅 ▲퍼스널 컬러 취업 컨설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인천공항 고속버스 내일부터 운행

금호고속 심야 프리미엄 노선 신설

담양군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바로 연결되는 고속버스 노선이 오는 15일 신설된다. 담양군은 13일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금호고속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신규 운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공항 직행 노선이 없어 광주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해 환승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규 노선은 심야 시간대에 운행된다. 담양에서 오전 1시40분 출발해 고창과 정읍을 경유한 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는 오전 5시50분, 제2터미널에는 오전 6시15분에 도착한다. 귀환편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오전 10시15분, 제1터미널에서 오전 10시50분에 출발

해 담양으로 돌아온다. 요금은 프리미엄 기준 주중 5만9천200원, 심야 6만1천800원이다. 예매는 '티머니GO'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하행 모두 가능하며, 상행편은 코버스 홈페이지와 '고속버스티머니' 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인천공항행 고속버스 개통으로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영 금호고속 사장은 "이번 노선 개통으로 지역 주민의 이동 선택지가 넓어졌다"며 "더 많은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시 세계자연보전총회 참석...생태도시 위상 높여

IUCN 고위급 회담 참여
나이지리아와 협약 체결

순천시는 13일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참석해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고위급 회담에 초청돼 세계 각국 정부 관계자와 지방정부 대표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회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 주제는 정책과 자본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시대에, 자연과 그 관리자들은 기후위기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이다. 순천시는 순천만 복원과 흑두루미 보호 등 자연기반해법(NbS) 사례를 소개하며 생태 회복의 모범 도시임을 알렸다. 또한 IUCN 신규 회원 도시로 가입한 순천시는 라산 칼리파 알 무라바크 회장, 그레텔 아길라르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향후 협력 및 국제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순천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생태도시임을 확인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10일 아부다비 WCC 현장에서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주와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순천시 제공) 했다"며 "IUCN과의 협력을 강화해 순천의 비전이 세계의 의제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순천시는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주와 '생태명문 전환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해각서'를 체결하고, 산림·습지 보전 등 아시아-아프리카 지방정부 간 생태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순천=정기 기자

광양 K-POP 페스티벌 신예 뮤지션 가세

오는 17-18일 공설운동장
W3WAY·숨 등 무대 올라

광양시는 13일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에 신예 뮤지션 'W3WAY'와 '숨'을 추가 투입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무대를 한층 풍성하게 꾸민다"고 밝혔다. 오는 17-18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 정상급 아티스트 라인업에 새로운 뮤지션이 가세해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음악적 감동을 선사한다. 첫날에는 경서, 아홉, 우디, 트리플에스, 헤이즈 등이 무대를 빛내고, 둘째 날 1부에는 어반자카파, 웬디, 2부에는 지원이, 박군이 출연해 발라드와 트로트 무대를 선보인다. 여기에 'W3WAY'와 '숨'이 둘째 날 1부 무대에 합류해 한층 신선하고 개성 있는 색채를 불어넣으며 만족도

높은 페스티벌을 완성할 전망이다. W3WAY는 감각적인 퍼포먼스와 독창적인 음악 색깔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아티스트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팬덤을 확장하고 있다. 싱어송라이터 '숨'은 섬세한 보컬과 따뜻한 감성으로 인디·발라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 더욱 많은 관객의 취향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신예 아티스트 보강으로 정상급 아티스트와 신예 뮤지션이 어우러진 광양 K-POP 페스티벌만의 독창적 라인업이 완성되면서, 축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기존의 탄탄한 최정상급 라인업에 신예 아티스트가 합류하면서 라인업이 더욱 풍성해졌다"며 "강렬한 퍼포먼스와 비주얼,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